

자문교수

※ 가나다순

한국측(61명)

강제훈(고려대)	문옥표(한국학중앙연구원)	연규홍(한신대)	정승연(인하대)
강철구(배재대)	문정인(연세대)	오세정(충북대)	정창원(제주대)
고유환(동국대)	민영성(부산대)	요시모토 코지(경상대)	조진희(숙명여대)
김미현(이화여대)	박경하(중앙대)	유요한(서울대)	조준범(성결대)
김민구(전남대)	박대재(고려대)	이진한(고려대)	지현숙(배재대)
김민규(동아대)	박삼현(건국대)	이창민(한국외대)	채성식(고려대)
김상준(연세대)	박용순(성결대)	이향철(광운대)	최정기(전남대)
김수갑(충북대)	박치원(한국외대)	임대근(한국외대)	최영환(동국대)
김순전(전남대)	박환하(경성대)	임영진(전남대)	최우용(동아대)
김영순(인하대)	백승국(인하대)	임온규(부산외대)	최희식(국민대)
김용의(전남대)	사이토 아케미(한림대)	임혁백(고려대)	표민찬(서울시립대)
김종대(중앙대)	서영대(인하대)	장세훈(동아대)	허남준(제주대)
김치완(제주대)	서영표(제주대)	장원호(서울시립대)	황기식(동아대)
김학권(원광대)	송효섭(서강대)	전홍찬(부산대)	
김현철(서울대)	신진욱(중앙대)	정근식(서울대)	
김혜숙(이화여대)	양준호(인천대)	정병호(한양대)	

일본측(62명)

가나즈 히데미(리쓰메이칸대)	야스다 타케히코(니혼대)	전재욱(도쿄대)
가시오 나오키(게이오대)	오니시 유타카(고베대)	카토 케이키(히토쓰바시대)
고바야시 요시아키(게이오대)	오사 시즈에(고베대)	카츠라지마노부히로(리쓰메이칸대)
나카 스미오(교토부립대)	오오시마 타쿠(조사이국제대)	카타오카 류(도호쿠대)
니시무라 아키라(도쿄대)	오오이시 요시히로(메이지대)	켄조 테이지(치바대)
마키노 에이치(호세이대)	오오키 야스시(도쿄대)	쿠라바야시 마사토(조사이국제대)
미와 켄지(일본교육대학원대)	오자와 토모하루(규슈국제대)	쿠리타 루미코(조사이대)
미츠이 타카시(도쿄대)	오자키 이치로(훗카이도대)	키무라 칸(고베대)
사노 마사토(도호쿠대)	오카다 히로키(고베대)	키미야 타다시(도쿄대)
사노 켄지(기나가와대)	오카모토 아키라(히로시마여학원대)	키시에 신스케(도쿠시마대)
사도 아키히로(츄쿄대)	오카모토 타카코(메이지가쿠인대)	타니모리 마사히로(코난대)
사이토 요시히코(오사카경제대)	오타 오사무(도시샤대)	테루야 유키오(기나가와대)
사지마 아키코(후쿠오카여학원대)	와타나베 사토시(시즈오카현립대)	토자키 하지메(와세다대)
사카모토 타다시(나고야외국어대)	요시다 유타카(히토쓰바시대)	토코로 노부유키(니혼대)
삿사 미츠아키(리쓰메이칸대)	우메야 키요시(고베대)	하라 토모히로(테이쿄대)
센 세이키(조사이대)	유미야마 타츠야(도쿄공업대)	하세가와 코우(훗카이도대)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대)	이구치 미츠클(도시샤대)	호시노 하루히코(후쿠오카대)
스가와라 야스노리(훗카이도가쿠인대)	이노우에 토모카츠(사이타마대)	후카가와 히로시(규슈대)
스기하시 타카오(리쓰메이칸대)	이연숙(히토쓰바시대)	
시마자노 스스무(조치대)	이와사키 타케히코(구마모토대)	
시미즈 아키히로(테즈카야마대)	이와이 히로시(테즈카야마대)	
야마오카 미치오(와세다대)	이토 마사유키(아이치가쿠인대)	

포럼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이원범(동서대)

분과	한국측	일본측
1. 국제관계	이철호(부산대)	고하리 스스무(시즈오카현립대)
2. 정치·법률	임석준(동아대)	시미즈 유이치로(게이오대)
3. 경제·경영	박성빈(아주대)	다카세 코이치(와세다대)
4. 역사	송양섭(고려대)	하야시 유스케(메이세이대)
5. 언어·문학	표정욱(숙명여대)	사이토 마레스(도쿄대)
6. 사회·젠더	신지원(전남대)	우오즈미 아키요(조사이국제대)
7. 종교·사상	최종성(서울대)	가와세 타카야(교토부립대)
8. 민속·인류	박환영(중앙대)	사쿠라이 요시히데(훗카이도대)
9. 문화·예술	신광철(한신대)	하마다 요우(테이쿄대)

오시는길



대중교통

사당역 4번 출구, 과천

• 좌석버스 7000, 7001번 승차 →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 아주대(35분)

강남역 5, 6번 출구, 양재역 9번 출구

• 좌석버스 3007번 승차 → 경부고속도로 → 아주대(40분)

• 신분당선 탑승 → 광교중앙역(아주대) 하차(33분) → 도보 또는 셔틀버스/마을버스 7번 이용

잠실역 6번 출구

• 좌석버스 1007-1번 승차 → 경부고속도로 → 아주대(50분)

성남, 분당, 수지 지역

• 좌석버스 4000번, 시내버스 720, 720-1, 720-2, 720-3번 승차 → 아주대

• 신분당선 판교역, 정자역, 동천역, 수지역, 성북역, 상현역 탑승 → 광교중앙역(아주대) 하차 → 도보 또는 셔틀버스/마을버스 7번 이용

승용차

동수원IC

• 1호선(국철) 이용, 수원역에서 하차, 시내버스 11-1, 46-1, 720, 720-2, 730번 승차 → 아주대(9분)

수원IC

• 원천유원지 삼거리 → 국립지리원 → 아주대(19분)

수원버스터미널

• 시청사거리 → 농협사거리 → 뉴코아아울렛 → 효성사거리(원형육교) → 아주대(14분)

수원역

• 도청사거리 → 매교사거리 → 중동사거리 → 성빈센트병원 → 동수원 사거리 → 캐슬호텔 → 아주대삼거리 → 아주대(18분)

연락처

• 아주대학교(국제학술대회장)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Tel : 031-219-2114

• 수원 벨류호텔 하이엔드(대회사무국 지정숙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 Tel : 031-230-6000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사무국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내

URL : www.japancenter.or.kr Tel : 051-320-1900~1

E-Mail : japancenter@dongseo.ac.kr Fax : 051-320-1902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공개토론테마

초 네트워크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기간 2017년 7월 1일(토)~7월 2일(일)

장소 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시)

주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주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협찬 한국연구재단, JAPAN FOUNDATION, 동서대학교

후원 경기일보, 일한문화교류기금

모시는 말씀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를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학술대회를 흔쾌히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캠퍼스를 제공해 주신 아주대학교 유희석 총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흔쾌히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권철현 전 주일본대사님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포럼의 전체 테마는 ‘초 네트워크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 역사적 변혁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자연과학에서의 에프로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과의 학제적·학융합적인 연구의 촉적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일 것입니다.

한일차세대학술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문·사회분야 대학원에 다니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학문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연구를 권장해 온 것이 바로 우리 포럼입니다. 지금까지 13년간 4천명 이상의 신진연구자가 참가하여 국가와 학문분야의 경계를 넘어 연구발표와 토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이야말로 이 사회적 변혁기에 크게 활약할 인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틀을 초월한 과제설정 능력과 연구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세계의 공동 과제를 발견하고,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세계에 발신하는 연구자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선배가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 포럼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본 포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